

『제임스 조이스 저널』

제9권 2호(2003년 12월) 373-380

<번역>

(1933년 울지 판사의 “울리시즈” 해금 판결은 미국 법원 사상 유명한 사건 중의 하나요, 판결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문학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법 집행 70주년을 맞이하여 여기 판결문을 우리말로 번역해 본다. -역자 김종진)

“울리시즈”를 해금 조치한 존 울지 판사의 판결문

(1933년 12월 6일 미국지방법원 집행)

미국 지방법원

뉴욕 남부지청

피청구인: 미합중국

청구인: 주식회사 랜덤 하우스
(심의본 “울리시즈”)

판결문 A.110-59

미합중국 법전 19편 1305항, 1930년 관세조례 제305항 하에, 제임스 조이스 저 “울리시즈” 서(書)를 상대로, 당항이 의미하는 바에 따라 본서는 외설적이며, 따라서, 합중국 내로 수입불가하고, 압류, 과료, 몰수 및 파기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미합중국이 제기한 약정-이하 이렇게 서술하기로 함-에 첨부된, 몰수 처분에 대한 이의 재정을 신청한 건임.

피청구인(미합중국) 소송대리인-사무엘 C. 콜먼 및 니콜라스 아트라스 지방검사, 몰수 처분을 찬성하며 몰수 처분 이의 재정 신

청을 반대한다.

청구인(그린바움, 울프 및 언스트 제씨) 소송대리인-주식회사 랜덤 하우스 법률 고문 모리스 L. 언스트 및 아래산더 린디 변호사, 몰수 처분 이의 신청에 찬성하며 몰수 처분에 반대한다.

존 울지:

여기에 명예 훼손을 기각하는 법령을 위한 발의가 부여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물론, 과료와 파기의 법령을 위한 정부의 발의는 취소된다.

따라서 소송비용 없이 명예훼손을 기각하는 법령이 여기에 제기될 수 있다.

I. 본건에 있어서 수반되는 관례는 **합중국 대 한 권의 책: 제명 “피임법”**, 합중국 법정규약 51 F. (2d) 525항의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행한 제안과 일치하는 바, 그것은 다음과 같다:

문건은 “울리시즈”를 상대로 과료를 위한 명예훼손에 대한 원고의 응답 문서에 의하여 합치된 다음, 약정은 합중국 법무부와 원고 측 검사들 사이에 아래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1. 책 “울리시즈”는 따라서 그것이 바로 전체로서 통합된 양 명예훼손에 부가되거나 그 일부분이 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소송의 당사자들은 배심원 재판을 받을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했다.
3. 각 당사자는 법령을 유리하게 신청하기로 동의했다.
4. 이러한 반대 발의 상으로 법원은 포함되는 법과 사실의 모든 문제들을 결정하며 더욱이 총체적 평결을 내릴 수 있다.
5. 이러한 발의의 결정 상 법원의 법령은 그것이 마치 재판 후의 법령 인양 제기되어 질 수 있다.

본인에게 이런 종류의 재판 과정은 이와 같은 책의 몰수에 대한

이의신청에 극히 적합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것은 즉심의 경우에 있어서 특별히 유익한 진행 과정인지라, 그 이유인즉 “울리시즈”의 길이와 그것을 읽는 어려움 때문에, 배심원의 재판은, 그것을 다룸에 있어서, 거의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지더라도, 극히 만족스럽지 못한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II. 본인은 “울리시즈”를 통틀어 한번 읽었고, 정부가 특별히 탄핵하는 구절들을 여러 차례 읽었다. 사실상, 여러 주일동안, 본인은 자신의 의무가 이 사건에 내리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위해 많은 여가를 받쳤다.

“울리시즈”는 읽거나 혹은 이해하기에 쉬운 책이 아니다. 그러나 그에 관해 많은 것이 씌어졌으며, 그에 대한 생각에 정당히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의 보조물이 되어 버린 많은 다른 책들을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고로 “울리시즈”의 연구는 과중한 작업이다.

- III. 그러나, 문학계에 있어서 “울리시즈”의 명성은 책이 씌어진 의도에 대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본인 자신을 만족하게 할 필요한 시간을 갖도록 보증했다. 왜냐하면, 물론, 책이 음란한 것으로 고소된 이상, 그것이 씌어진 의도가 소위, 통상적 말로, 호색적(프르노)-즉, 외설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으로 씌어졌을 지의 여부를 우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결론이 책이 호색적이라면, 그것은 사실심리의 끝이요, 압류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울리시즈”에 있어서, 그의 비상한 솔직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관능주의자의 추파를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런고로, 본인은 그것이 호색적이 아님을 주장한다.

- IV. “울리시즈”를 씌에 있어서, 조이스는, 전적으로 기발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 새로운 문학적 장르에 심각한 실험을 하

려고 추구했다. 그는 1904년의 더블린에 살고 있는 중하위층 인물들을 택하고, 그 해 6월 초순 어느 날 그들이 자신들의 통상적 직업에 몰두한 채 도시를 배회하며 행동한 것을 서술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들 중 많은 자들이 그 동안에 관해 생각했던 바를 말하려고 노력한다.

조이스는 의식의 스크린이 그의 언제나 변화하는 만화경적 인상들과 함께, 마치 그들이 플라스틱 양피지 사본 위에 있는 듯, 각각의 주변에 있는 실질적 사물들에 대한 자신의 관찰의 초점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최근의 그리고 잠재의식의 지배와 연관하여 끌어낸, 반음영(半陰影)속의 과거 인상들의 잔여물들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보여주려고—본인 생각에, 놀라운 성공으로—시도했다. 그는 이러한 각각의 인상들 하나 하나가 그가 서술하고 있는 인물의 생활과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준다.

그가 얻으려고 추구하는 것은 가시적 배경을 지닌 그러나 약간 몽롱하고 다양한 정도로 초점에서 벗어난 듯 한, 분명한 전경(前景)을 주는 영화 필름상의 이중적, 혹은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다층적 노출의 결과와 다르지 않다.

그것은 한층 적절하게 그래픽(그림의) 기법으로 분명히 나아가는 효과, “울리시즈”의 독자가 봉착하는 많은 불명료함에 대한 설명을 말로서 전달하려는 듯 본인에게 생각된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책의 또 다른 양상을 설명하는 바, 다시 말하면, 조이스의 등장인물들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의 성실과 정직한 노력으로 본인은 한층 생각하고자 한다.

만일 조이스가 자신이 “울리시즈”에서 적용한 기법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정직하게 시도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심리적으로 오해받기 쉬웠을 것이고, 자신이 선택한 기법에 충실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예술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조이스가 그의 기법에 충실했고, 그것의 필요한 함축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나, 그의 인물들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며, 자신이 그토록 많은 공격의 주체였고, 자신의 목적이 너무나 자주 오해받고 와전되어 왔음을 충분히 말하려고 정직하게 시도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실현하기 위한 자신의 시도가 그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불결한 말들로 생각되는 야간의 단어들을 우연히 사용하도록 요구했던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그의 등장인물들의 생각에 있어서 섹스와 너무나 통렬한 강박관념으로 때때로 나아가게 했기 때문이다.

불결한 것으로 비판받는 단어들은 거의 모든 남자들 그리고, 본인은 감히 말하거니와, 많은 여자들에게 알려진 옛 색슨족의 말들이요, 이러한 단어들은, 본인이 믿기에, 조이스가 서술하기를 추구하고 있는 육체적 및 정신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유형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다. 그의 인물들의 마음속에 섹스의 주제의 거둬드는 출현에 대해서, 그의 현장은 켈트적이요 그의 계절은 봄(春)임을 언제나 기억되어야 한다.

조이스가 사용하는 이러한 기법을 우리가 즐기느냐 않느냐는 각자의 취미의 문제로서 그에 대한 불찬성 또는 논쟁은 무용한 것이요, 그러나 본인에게는 그러한 기법을 어떤 다른 기법의 표준에 맞추는 것은 거의 불합리함에 가까운 듯 보인다.

따라서, 본인은 “올리시즈”가 성실하고 정직한 책이라 주장하며, 그것에 대한 비평은 그것의 근본적 원리에 의하여 전적으로 처리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V. 더군다나, “올리시즈”는 이처럼 조이스가 독력으로 시작한 어려운 목적을 가지고 주로 성취한 성공임을 우리가 감안할 때, 일종의 놀라운 결작이 아닐 수 없다. 본인이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올리시즈”는 읽기에 쉬운 책이 아니다. 그것은 탁월하면

서도 따분하며, 이해할 수 있는 가 하면 때로는 극히 모호하다. 그것은 본인에게 많은 곳에서 지겨운 듯 싶지만, 그러나 비록 그것이, 본인이 위에서 이미 서술한대로, 일반적으로 불결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불결을 위한 불결로 생각되는 것을 본인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책의 각 단어는 조이스가 자신의 독자들을 위하여 구축하기를 바라는 그림의 세목에 대하여 작은 모자이크 세공처럼 이바지한다.

만일 우리들이 조이스가 서술한 이러한 사람들과 사귀고 싶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선택의 문제다. 그들과 간접적인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는 “울리시즈”를 읽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아주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조이스와 같은 의심할 바 없이 진실한 예술가가 언어에 있어서 한 유럽 도시의 중 하위급 인물들의 참된 그림을 그리기를 원할 때, 아메리카의 대중들이 그러한 그림을 보는 것이 법률상으로 있을 수 없단 말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인이 위에서 이미 발견한 대로, 조이스가 통칭 호색적 의도로 “울리시즈”를 쓴 것이 아님을 단지 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본인은 책이 씌어진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국 그것의 효과를 확정하기 위해 한층 객관적인 기준을 그의 책에 적용하도록 진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VI. 명예훼손이 제기 되는 법령은, 우리가 여기에 관한 한, 어느 외국으로부터도 합중국으로 “어떠한 외설적 책”의 수입을 단지탄핵할 따름이다. 합중국, 1305법정 규약, 제 19장, 1930관세조례 제 305항. 처벌의 절차법상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취급하는 법률에서 발견되는 책들의 배당 순위를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고로, 본인은 “울리시즈”가 저 용어의 합법적 정의 내에서 외설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도록 단지 요구받고 있다.

법원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정의되는 “외설”이란 단어의 의

미인족: 성적 충동을 야기하거나 성적으로 불순하고 육욕적인 사고에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 이를테면: *던롭 대 합중국*, 합중국 법정규약 486, 501; *합중국 대 “부부애”란 제목의 책*, 법정규약 821, 824, 제 48 F항; *합중국 대 “피임”이란 책*, 법정규약 525, 528, 제 51 F항; 그리고 *다이스아트 대 합중국*을 비교하라, U. S.령. 법정규약 655, 657, 제 272항; *스웨어린겐 대 합중국*, U. S.령 법정규약 446, 450, 제 161항; *합중국 대 덴네트*, 법정규약 564, 568, 39 F항; *피플 대 웬드링*, 법정규약 451, 453, N.Y. 258항.

특별한 책이 이와 같은 충동이나 사고를 자극할 경향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평균적 성적 본능을 가진 사람—소위 프랑스 인들이 부르는 *감성적 보통 사람*—에게 그것의 효과에 대해 법원의 의견에 의하여 테스트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는, 이러한 합법적 심문의 영역에 있어서, 행위법상의 “합리적인 사람” 그리고 특허법상의 창작 문제상의 “예술에 능한 사람”이 행하듯 가설적 위탁자와 꼭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러한 위탁자의 고용에 내포되는 위험은 사실을 다루는 재판관이, 그가 아무리 공정하게 의도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타고난 성향 때문에 자신의 위탁자를 자기 자신의 특이한 성격에 지나치게 추종하게 만든다. 여기서, 본인은 만일 가능하다면, 이것을 피하려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채택함으로써 본인의 위탁자를 그가 달리 할 수 있는 이상으로 이 점에 있어서 한층 객관적이 되도록 처리하려고 시도했다.

본인은, 현재 심의 중인, “올리시즈”의 양상에 관한 결정을 내린 다음에, 본인의 위탁자를 위하여 위에 서술한 요구에 본인의 의견으로 응답한 두 친구들과 함께 본인의 감명들을 점검했다.

이러한 문학적 평가자들—타당하게 그들을 서술했는지 모르겠으나—이 개별적으로 초청되었는데, 그들 중 아무도 본인이 상대방과 상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본인

이 문학과 인생에 관한 그들의 의견을 최고로 평가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둘 다 “울리시즈”를 읽었으며, 그리고 물론, 이러한 동기와 전적으로 무관했다.

본인의 평가자들 중 어느 한 쪽에게도 본인의 결정이 무엇인지를 알리지 않은 채, 본인은 그들 각자에게 외설의 법적 정의를 제공하고, 자신들의 의견으로 “울리시즈”가 이러한 정의 내에서 외설적 인지의 여부를 물었다.

본인은 그들 양자가 모두 본인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을 알고 흥미를 느꼈다. 즉 “울리시즈”를 전체적으로 읽는 것은—책은 이와 같은 테스트 위에서 읽혀져야 하거니와—성적 충동 혹은 육욕적 생각을 자극하는 경향은 전혀 없으나, 그에 대한 순수한 효과는 단지 남녀의 내적 생활에 약간의 비극적인 것이요 아주 강력한 논평이었다는 점이다.

법이 관여하는 것은 단지 보통의 사람의 경우다. 본인이 지금까지 서술한 이러한 테스트는, 그런고로, 인류의 관찰과 서술을 위한 새로운 문학적 방법을 고안하는 한 성실하고 심박한 시도인 “울리시즈” 같은 책의 경우는 외설에 대한 유일한 고 타당한 테스트이다.

본인은 “울리시즈”가 그것의 몇몇 장면들로 인하여 비록 정상이지만, 어떤 민감한 사람들에게 취하도록 권하기에는 오히려 독한 일종의 음료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오랜 반성 끝에, 나의 신중한 의견은, “울리시즈”의 효과가 많은 곳에서 의심할 바 없이 약간 메스껍다 할지라도, 어디에고 그것이 최음제가 될 만한 경향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고로, “울리시즈”는 합중국 내에 허용될 수 있다.

존 M. 울지
합중국 지방법원 판사
1933년 12월 6일
(김종건 역)